

2021

전국학생행진
팸플렛 2호

행진

보궐선거
특집호



글02

: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으로 포장된 내로남불을 멈춰라!



1. 청년 세대가 겪어 온 한국 정치의 모습 :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 구도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과 민주당계 정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이름만 바꾸며 꾸준히 경쟁해왔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 중요한 정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꼭 하는 행동이 생겼다

는 점입니다. 자신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후보라고 호소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이러한 풍경이 청년세대가 보아왔던 한국 정치의 굵직한 순간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국가의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자살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 진보적인 인사들이 분향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인상 깊은 인물이었구나 생각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광우병 촛불집회가 있었지요. 뉴스든 거리에서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압박 수사가 있었다거나, 한미 FTA와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음모론 등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당시 촛불집회를 촉발한 한미FTA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사,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에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의 이야기를 말해보려 합니다. 반(反)이명박이라는 구

호는 그대로 반(反) 박근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노동조합 탄압, 언론 탄압, 정경유착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는 기득권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지요. 16년 촛불에서 ‘적폐 청산’을 구호로 대안 세력의 표상을 선취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각 사건에 대한 평가야 독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청년 세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의 역사를 공통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자신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 문제의 원흉인 ‘보수 정당(국민의 힘)’, ‘이명박·박근혜’에 대항하는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10년 넘게 들어온 셈이지요.

2. 문재인 정권 내내 반복된 분노와 원한의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선’ 혹은 ‘개혁 세력’으로 위치 짓고, 그 반대편인 국민의 힘을 ‘악’ 혹은 ‘적폐’라고 규정하며 분노를 동원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도 반복된 일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최근 3년을 살펴보며 민주당이 만들어온 개혁 vs 적폐, 선 vs 악의 프레임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개혁이 사실은 허구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2-1. 2019년,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웅동학원·사모펀드 등 일가족의 재산형성 비리와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문제가 주된 의혹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대의를 강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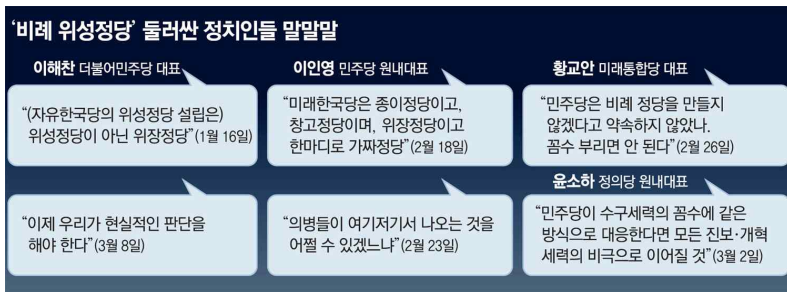
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검찰은 터져 나오는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극성 지지자들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일부러 법무부 장관을 강압적으로 수사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또한 조국 일가의 비리를 비판하는 세력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노에 근거해 편 가르기에 치중한 결과 서초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의 집회가, 광화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자들의 태극기 집회가 이뤄지며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열에 대해 청년 세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기사에 실린 대학생의 반응인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조국 수호 집회 아니냐"라는 말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분노를 개혁으로 이미지메이킹 하면서 집권 세력과 관련된 수사를 적폐로 몰아붙인 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극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 조국 반대=적폐 세력의 구도를 만들며 집권 세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는 퇴행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못 이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시스템 파괴를 비판하며 사퇴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개혁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동원한 분노에 의해 선택적으로 적용된 사례일 것입니다.

2-2.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위성정당



바로 1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적폐 청산의 대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의회 등 대의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소수정당에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므로 소수 의견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대형 정당의 의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승자독식에 따른 소수자들의 의견 미대변, 지역주의에 따른 정당 간 정책 경쟁의 약화를 문제 깊으면서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지역주의 타파, 선거제 개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득표율에 따른 의석 비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지지자들이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이 먼저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꿈을 썼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적폐 청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야당에 맞서기 위해 비례 대표제도의 도입 취지를 파괴해도 된다는 논리는 승리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선거에서 야당을 이기기 위해 소수정당의 표를 빼앗아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비례한국당이 우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는 발언이 이를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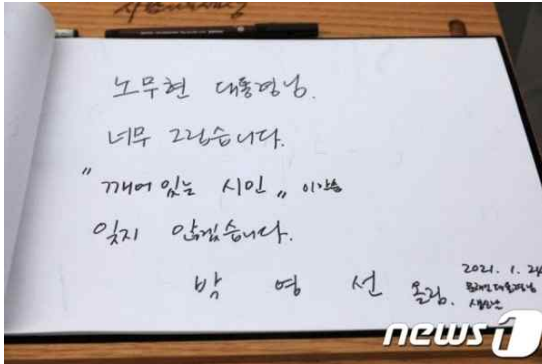
2-3. 2021년, 보궐선거



이재명
@Jaemyung_Lee

...

<800만 부울경의 염원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는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할 그 날을 기대합니다>



한국의 주요 지자체인 서울, 부산 시장을 뽑는 2021년 보궐선거(4.7)에서도 정책 경쟁 없이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붙이는 주장들이 들립니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성폭력 사건이 발단된 선거지만 책임 있는 반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위기의 심화, 집값 폭등 등 문제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임기 말 정권 심판론이 여기저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주를 기준으로 문제인 정부의 지지율은 36.9%입니다. 집권 초기 70%에 육박했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 말 문제인 정부를 평가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염원인 장기 재집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다시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거나 보수정당의 무능을 공격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민주당다

웠던 후보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영선 후보는 직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그리움을 방명록에 표현했습니다. 박인영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30년간의 야당 독점이 부산의 위기를 만들었다며 노무현의 꿈인 가덕도 신공항을 완성하는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영춘 후보는 부산시장을 국민의 힘이 독점하며 노무현의 꿈을 중단시켰고 경제난을 가중했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동남권의 항공 수요를 담당하는 김해공항의 활주로, 승객 수용률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절차를 거치며 다른 지역에 공항을 짓는 것보다 김해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김해 신공항을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기 결정된 적폐라는 이유로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역 균형발전을 바랐던 노무현의 꿈으로 규정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 타당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무시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의 꿈을 무시하는 적폐 세력으로 주장으로 들릴 뿐입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2007년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되었듯,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문제인 정권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을 투기꾼, 기득권으로 몰아붙이며 규제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공공기관인 LH 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터졌습니다. 작년까지 LH 사장 자리에 있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변창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투기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3. 개혁의 탈을 쓴 민주당의 내로남불

글의 앞부분에서 우리 청년 세대는 한국사회의 문제의 원흉인 보수 정당, 이명박·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 달라는 주장을 10년 넘게 들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은 개혁으로 치장했을 뿐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동원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뿐입니다. 심지어 비리 수사에 대한 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 등 사회를 후퇴시키는 행태를 개혁이라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원한과 분노, 향수가 정치를 지배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구제, 경제난 극복 등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수많은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하는 방식은 남 탓할 누군가를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K-방역을 홍보하면서 n차 대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세력을 탓할 뿐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는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재벌과 이전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고 하면서도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전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경쟁자에 대한 분노나 노무현에 대한 향수만을 자극하며 장기 재집권을 위해 독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아직 청산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면서, 경쟁자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지를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런 부끄럼 없이 원한의 정치와 민주주의 파괴를 사회 개혁으로 포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만 빼고’를 선언합니다.

* 글3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한 정치권 내 쟁점과 구도에 대한 해설과 그에 대한 행진의 입장이 담길 예정입니다.